

A large, bulbous ceramic jar, likely a storage vessel, featuring a prominent blue and white dragon design. The dragon is depicted in a dynamic, coiled pose, surrounded by stylized clouds and waves. The jar has a wide mouth and a flared base decorated with a repeating geometric pattern.

A circular, octagonal-shaped plate with a blue and white design. The central motif is a dragon, surrounded by a decorative border. The plate is set against a dark background.

→

■ 아래 사진은, 이 사람의 어진(왕의 초상화) 복제본입니다. 이 왕은 누구일까요?



→

■ 이 물건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당시 혁신이었습니다.
이것의 이름과 용도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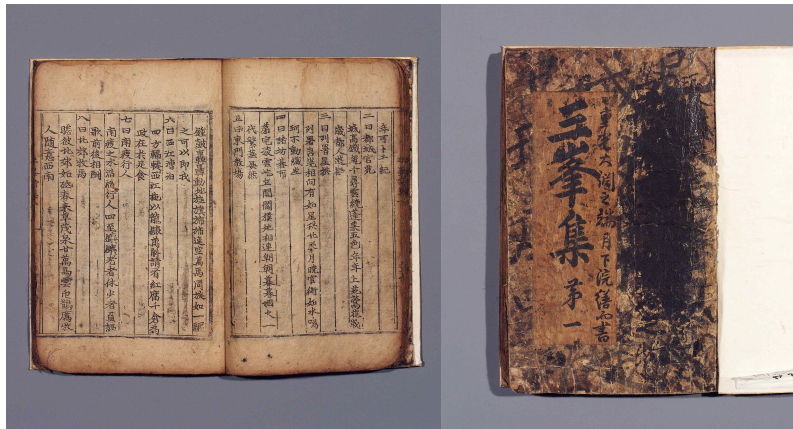
→

■ 아래 물건은 성균관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코끼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. 용도는 무엇일까요?



→

■ 이 책은 <삼봉집>으로, 조선의 건국 이념과 한국학 연구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. '삼봉'은 조선 초기 나라를 세운 공신이자 성리학자였던 이 사람의 호인데요.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?



→

■ 과거, 동아시아에서는 하늘의 명을 받아야 왕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. 그래서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주는 하늘의 뜻인 천문을 이해하고 이를 세상에 반포하는 것이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지요. 이것 역시 14세기말 조선에서 관측한 별자리를 바탕으로 제작한 별자리 지도입니다. 이 지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(힌트 : 8글자)



→

■ 조선의 왕은 '경연'이라는 자리를 통해 신하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등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. 이 유물은, 그러한 경연에서 강의하고 토론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.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



→

■ 아래 물건의 용도는 무엇일까요?



→

■ 이것은 조선의 왕인 이 사람이 신하들에게 내려준 '자'입니다. 직접 지은 시를 은으로 새겨서 가까운 신하들에게 나누어준 선물이라고 하는데요.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순조의 아버지인 이 왕은 누구일까요?



→

■ [객관식]

조선시대에는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'호패'가 있었습니다.

이름과 태어난 년도와 과거급제여부가 기록되어 있었는데요. 다음 호패의 주인은 누구일까요?



① 이수만 ② 방시혁 ③ 윤종신 ④ 박진영 ⑤ 양현석

■ 아래의 패는,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들고 다니던 것일까요?



→

■ 이것은 채용신이라는 사람이 그린 고종의 어진입니다. 고종은 조선의 몇 대 왕일까요?



→

■ 동양의 각 나라에서는 근대의 화폐제도를 도입하면서 아래 사진과 같은 외국의 은화를 모델로 정했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중국 상인에 의해 이 나라의 은화가 유입되었는데요. 이 은화를 만든 나라는 어디일까요?



→

■ [객관식]

아래 그림은 이명기라는 화원이 그린 '강세황'의 초상입니다.

다음 중, 강세황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직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?



- ① 한성판윤(오늘날의 서울시장) ② 과학자 ③ 문장가 ④ 화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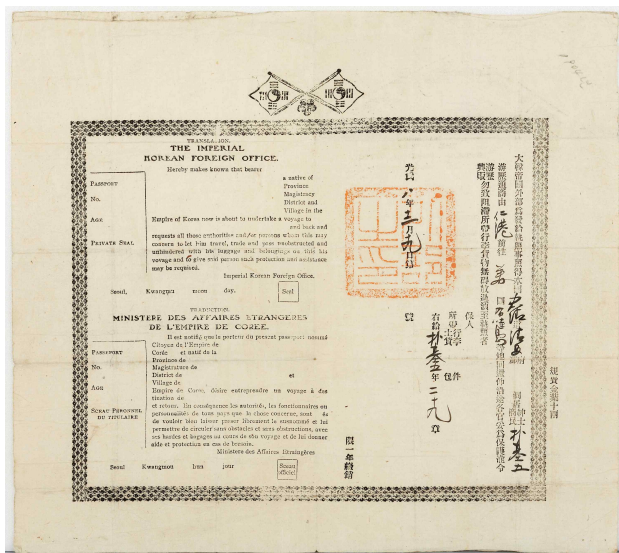
■ '조선'을 한자로 써 보세요.

→

■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에 있는 보물 제 2호는 무엇인가요?

→

■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이 문서는 오늘날(2017년 현재)로 따지면 어떤 물건일까요?



→

- 기증관에는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물관에 기증된 유물들이 가득합니다.
기증관에 있는 유물들 중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골라서 따라 그려보세요.

[보너스문제]

- 국립중앙박물관으로 7행시를 지어보세요.